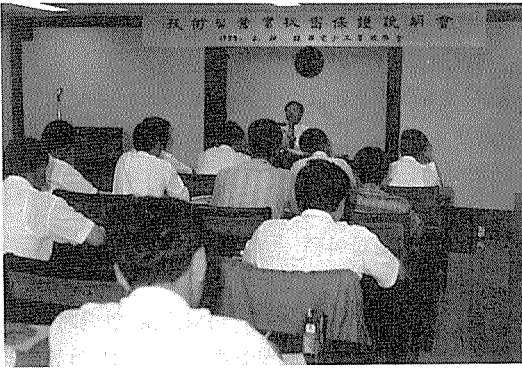


— EIAK 소식 —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20일 최근에 들어와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이 국내외로 유출되어 후발개도국들의 기술이 급격히 향상되어 수출의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됨에 따라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해 진흥회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회는 과거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산업이 고도화 되는 과정에서 기술 및 영업비밀의 누설이 기업발전의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작년말에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이 산업계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다시 그 회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동제도에 관한 홍보를 펼쳐 나가도

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 연사로 나온 특허청 황의창 상표심사 2과장은 이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동향과 우리나라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구제제도 및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경영전략 등에 관해 약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강력저지키로 결의

본회는 지난 8월 19일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공동으로 복제기기 생산14개사 대표들과 최근 본회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을 강행코자 하는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강력 저지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이미 우리 전자업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동제도의 도입에 대해 동제도 자체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현재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동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가지 이유를 내세워 동제도 도입을 강행코자 하는 데 대해 동대책회의에서는 그 도입 이유의 부당성을 실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국민들에게 홍보

해 나가면서 관계당국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키로 하였다.

첫째, 동제도가 통상압력과 연계되어 도입코자 하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까지 동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통상압력은 존재하지 않고(미국의 경우도 금년에 들어와서야 일부품목 시행) 오히려 최근에 미국이 독일 등의 동제도 시행국에 대해 내국민 대우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바, 만일 우리가 동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의 저작권 단체들이 내국민 대우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국내 저작권자 보다 오히려 외국의 저작권자 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공연히 동제도 도입으로 통상압력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다.

둘째, 공테이프 구입자는 사적복제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적어도 이들에게는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TV나 라디오 방송내용을 직접 시청하지 않고 이를 녹음 또는 녹화해서 보거나 듣고 싶을 때 듣는 것은 미국의 판례('84 Beta-max 사건)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자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테이프를 구입했다 하여 보상금을 내야할 의무가 반드시 성립되지 않고, 특히 녹화의 경우 사적복제를 위해서는 한가정에 2대의 VTR이 있어야 가능한데 비추어 과연 우리나라에서 2대 이상의 VTR을 보유한 가정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아직 우리나라로서는 가정에서의 사적복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91년부터는 상업용(프로) 테이프에 복제방지기능(Scramble)을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가정에서의 저작물 복제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생들이 어학실습이나 노래연습 등을 위해 구입한 공테이프를 저작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보상금을 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사적복제 허용으로 복제기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이익은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복제기기와 저작문화는 상호 연관분야 즉,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있으므로 복제기기의 보급증대는 저작문화의 발전을 가져와 그 만큼 저작권자 및 실연권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주었다. 실례로 어떤 유명가수가 방송이나 테이프 또는 음반이 없이 지금처럼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는 복제기기 발달이 저작권자들의 실익에도 기여 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며 복제기기 업계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법으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가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예 : 독일)로 수출시 이는 외국저작권자에게는 보상을 지불하고 내국인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외 저작권자간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적복제 보상금은 사적복제 행위자가 지불하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자별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업체나 수입자에게 편의상 대신 납부토록 한 것이다. 즉 독일로 우리 상품을 수출했을 경우 우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출품을 사용하는 독일의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을 독일의 수입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일본의 전자업계에 대해 한국정부에만 특별소비세라는 많은 세금을 내고 정작 일본정부에는 그와같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컴퓨터주기관,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키로

본회의 컴퓨터주기관산업분과위원회(위원장 : 정강환)는 지난 8월 24일 팔레스호텔에서

사장단 모임을 개최하고 그동안 대만산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온 컴퓨터 주기판 산업이 국내시장에서 어느정도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조정 관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국제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CPU 관세율의 면제, DRAM 공급의 원활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그런데 컴퓨터 주기판 산업은 '91년에 수입이 88.9%나 증가함으로써 동년 12월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후 '92년부터 조정관세의 적용, 공업발전기금의 지원 등을 통해 '92년에는 생산이 44.6%가 증가하고 수입은 58.1%가 감소하는 등 산업의 기반이 새롭게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컴퓨터 주기판 업계는 대만 업체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크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내수시장을 통해 국제 경쟁의 기반을 강화해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금년말까지 적용토록 되어있는 조정관세 적용기간을 '95년말 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CPU의 관세도 면제하고 반도체 DRAM의 공급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한편 관련업계도 동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공동개발의 확대, 부품의 공동구입,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가, 공동카다로그 제작 배포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또 앞으로는 공동상표의 채택, 해외지사의 공동설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회원의 확대와 수입기관에 대한 전자과장해 시험검정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하였다.

본회는 지난 8월 20일 금성사·삼성전자·대우전자·현대전자·한국전자 등 5개사의 수급기업 협의회를 대상으로 전자부품 국산개발 동향을 조사했다. 지난 상반기중에 181개 품목, 445개 부품이 새로 개발돼 6,300만 달러의 수입대체와 101억 5,9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컬러모니터 관련 부품의 국산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등 23개 부품이 상반기 동안 개발돼 1,561만 9,000 달러의 수입대체 실적과 21억 9,000만원의 원가절감을 실현했다.

또한 TV 분야에서는 17개 부품업체가 CRT 등 30개 부품을 개발, 1,007만 8,000달러의 수입대체와 15억 3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11개 부품업체가 개발에 나선 VCR 분야에서는 리모콘 모듈 등 25개 부품이 개발돼 826만 9,000달러의 수입대체를 실현했다.

오디오 분야에서는 테이프테크 등 18개 부품이 개발돼 335만 1,000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나타냈으며 전자레인지의 경우 10개 부품업체가 17개 관련부품을 개발하여 215만 2,000달러의 수입대체와 2억 4,5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을 통한 부품국산화도 활발히 전개돼 금년도에는 47개 업체가 56억 7,800만원을 지원받아 부품개발에 착수한다.

47개 업체가 현재 추진중인 부품국산화가 완료될 경우 228억원의 수입대체와 2,214만 8,000달러의 수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중 공업발전기금에 의한 개발은 21개사가 진행중인데 총 25억원이 지원되고 31억 7,800만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개발자금 분야에는 26개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본회의 CATV산업협의회는 최근 43종에 달하는 CATV용 동축코넥터 규격을 마련, 규격 제품생산을 권장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격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한 CATV개발업체들이 이 규격에 따라 동축코넥터를 생산하거나 채용하게 돼 사실상 국내 규격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삼우전자·이행전자 등 동축코넥터 업체들은 현행 한국공업규격(KS)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KS를 바탕으로 CATV용 동축코넥터를 △FT형 코넥터 △FT형 TC코넥터 △FT직결형 코넥터 △FP형 코넥터 △F형 코넥터 등 43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외경·핀길이 등의 규격을 정했다.

Fax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부품공급업체 삼성전자(주) 안병선 이사 등 4명, 수요업체 신도리코 천왕우 책임연구원 등 11명이 참석, Fax에 사용되는 TPH, CIS 표준화를 위한 수급기업간 표준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laten Roller 직경, 발열선 위치, Connector 수 및 형태, Screw Hole 위치, Heat Sink 크기 Thermister 특성 등 표준화 사양 추진항목을 결정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모터분과위원회(새한전자 정재선 사장)은 지난 7. 29, 8. 12, 8.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기 등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8mm 캠코더용 MR센서의 표준화규격을 협의하였다.

청소기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금성사, 신화기업사 등 관련 수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기용 먼지봉투의 표준화추진방향과 각사 생산규격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통신산업협의회

